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9~7/25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개설-부처님의 가르침 불자의 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초기불교입문:초기 불교 그 핵심을 담다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2	불교문화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7	관세음보살42수주진언 컬러링북	조미애	운주사
3	법화경(하) 이것이 불교다	무비	불광출판사	8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	불교신문사
4	해탈장엄론(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감뽀빠	운주사	9	상윳따니까야(1)	각묵	초기불전연구원
5	보리도차제광론2	쫑카파	나란다	10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청우당

책세상

"부처님 가르침 요체 담은 법화삼부경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사상체계"



법화삼부경 강설 1~6권
구선 강설 / 도서출판 연화 펴냄
각권 3만원

열반 앞둔 부처님이 설한 경전
평생 설법 요약된 요체들 수록
"향후 인류 나아갈 방향 제시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화삼부경' 은 〈무량의경〉과 〈묘법연화경〉, 〈보현보살행법경〉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 경전은 법화부 경전으로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고 설하신 경전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화삼부경' 은 부처님의 평생의 설법이 요약돼 그 요체들이 담겼다.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로서 수행과 경전 강설에 매진하고 있는 구선 스님이 〈법화삼부경 강설〉 전 6권을 발간했다. 구선 스님은 7월 18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법화삼부경' 이 불교교육 체계 확립과 새로운 기술 문명을 위해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구선 스님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무량의경〉에는 처음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등각도를 이루는 방법이 제시돼 있다. 견성오도법과 해탈도법, 보살도법과 등각도법이 그것으로, 부처님께서는 〈무량의경〉을 통해서 '무량의삼매' 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구선 스님은 "〈묘법연화경〉에서는 묘각도를 이루는 방법과 묘각도 이후에 진행되는 수행 절차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그러면서 법화삼매(法華三昧)와 구족색신삼매(具足 色身三昧),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와 육근원통법(六根圓通法)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구선 스님은?
출가 후 얻은 진리와 깨달음을 다양한 사상서에 담아 출간해 왔다. 이를 실생활에 접목하기 위해 지난 20년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저서로는 〈관(觀), 존재 그 완성으로 가는 길〉 〈관(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관(觀), 십이연기와 천부경〉 〈관(觀), 한글 자음 원리〉 〈한글문자원리〉 등이 있다. 현재 경북 영양 연화사 주지이며, 서울에서 선나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하는 법화삼매(法華三昧)는 육념처관(六念處觀)으로 육근청정(六根淸淨)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며 "이는 중생의 번뇌를 없애지 않고 육근의 청정함으로 생멸수행과 진여행을 병행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님은 '육념처관' 으로 육근청정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6지 현전지를 체득하게 되고 육근원통을 이루게 되면 보살도 9지 선혜지를 성취한 것이라고 강설했다

'법화삼부경' 의 세 번째 경전인 〈보현보살행법경〉에는 육근청정을 성취한 행자가 육근원통을 성취하는 방법에 대해 설하고 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육근원통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 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오회법과 육념처관법 △억불법과 심신해상법 △동법계 수행이다. 오회(五悔)란 권청, 참회, 수희, 회향, 발원을 말한다.

구선 스님은 "〈보현보살행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21일 동안 오회의 절차대로 하루 여섯 번씩 수행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육근원통을 이루게 된다고 설하셨다"면서 "〈보현보살행법경〉에서 말씀하신 육근원통법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만큼 소중하고 희유한 가르침"이라고 강조했다.

'법화삼부경' 에서는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절차 이외에도 놀라운 기술문명에 대한 가르침들이 설해져 있다는 게 구선 스님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구선 스님은 " '법화삼부경' 에는 물질의 근본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면서 "생명의 시작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그렇게 시작된 생명이 현재의 세포 구조물로 이뤄진 육체를 갖추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 내력과 절차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 '법화삼부경' 은 그 자체로 완벽한 사상체계이며 기술문서(技術文書)"라며 "이 경전으로 인해 향후 인류가 나아갈 방향이 새롭게 정해지고 새로운 기술문명이 태동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韓불교 대표 의식 작법 '총망라'



영산재·각배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예수재의범
해사 편찬/ 운주사 펴냄
2만5000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의식인 영산재와 예수재 작법을 망라한 의식집이 발간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인 해사 스님은 최근 〈영산재 · 각배재의범〉과 〈예수재의범〉을 편찬 · 발간했다.

〈영산재 · 각배재의범〉은 각종 천도재와 49재 등에 설시되는 영산재와 각배재를 여법하게 설행하기 위한 의식 절차 및 의식문을 종합 정리한 의식집이다. 해사 스님은 이 책에 실린 순서와 내용 그대로 진행하면 여법한 의식이 되도록 편집했다.

이 책은 〈오종범음집〉, 〈제반문〉,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자기산보문〉, 〈작법귀감〉, 〈석문의범〉 등 각종 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까지 참고하여 정리한, 영산재와 각배재 의식 절차 및 의식문의 결정판이다.

본문 중간중간 들어 있는 간단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가 참고사항을 적은 것으로, 원활한 의식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함께 '생전예수재' 는 말 그대로 '생전(生前)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를 뜻하는데, '자신의 사후를 위해 살아 있을 때 치르는 의례' 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특히 윤달이 드는 해에 사찰에서 성대하게 설행되며, 수륙재 및 영산재와 더불어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재의식 중 하나다.

해사 스님이 편찬한 〈예수재의범〉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1576)를 저본으로 〈석문의범〉, 〈요집〉, 〈수생경〉, 〈시왕경〉, 〈영산대회작법절차〉, 〈오종범음집〉 등 각종 의식문을 비교 분석하고, 현재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까지 참고하여 종합 정리했다.

이 책은 예수재 시 시련 · 대령 · 관욕 · 신중작법 · 괘불이운 · 설주이운 등은 재의 규모나 방법에 따라 설행(設行)할 수도 있으므로 함께 수록했으며, 시식(施食)은 보통 전시식(奠施食)을 거행하나 관음시식(觀音施食)으로도 거행할 수 있으므로 역시 의식문을 첨가했다. 또한 본문 중간중간 들어 있는 간단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 위해 편자가 참고사항을 적은 것으로, 원활한 의식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신성민 기자

AI 대한 철학 · 공학자 사유 '콜라보'



이진경×장병탁
선을넘는인공지능
이진경, 장병탁, 김재아 지음
김영사 펴냄 / 1만7800원

2022년 11월 공개된 챗GPT(ChatGPT)는 그동안 어떤 인공지능도 보여주지 못했던 미래를 인간들에게 보여줬다. 내가 던진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을 쏟아내는 인공지능을 보고 있자면, 답변 내용의 수준을 차제하더라도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다가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도 하게 된다.

이를 보면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과 유사할수록 거부감이 커지다가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다시 호감을 느낀다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의 어느 지점을 현재 지나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불교철학 관련 저술로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와 한국 AI 전문가 정병탁 서울대 교수가 인공지능 관련 대담집을 내놨다. 이들은 2년여 동안 15차례 만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적 콜라보레이션을 이뤄냈다. 이 과정에는 김재아 소설가와 출판편집자도 참여했다.

이들이 보여주는 지적 사유 콜라보의 여정이 쉽게 읽힐 만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이 있다면 곱씹으며 책장을 넘길만 한다. 특히 뇌중심주의 ·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이들의 대담은 뇌 못지않게 신체도 인지하고 기억하며 때로는 뇌의 사고 방향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최신 과학에 토대를 둬 눈길을 끈다.

특히 이진경 교수는 존 설의 '중국어 방 논증' 을 비판하며 이때 적용된 인간중심적인 '이해' 의 의미를 낱낱이 해체한다. 나아가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능' '신체' '감정' '자아' 등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되짚어보고,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 사물(기계)에게까지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재정의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환기하고 사고와 가능성을 확장시킨다.

나아가 사물이 자기 능력을 모두 발휘할 때까지 계속 생존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물과의 우정' 을 주장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자본의 지속 가능성' 시대에 일침을 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에게 가장 어려운 예술 영역은 무엇인가' '인공지능으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등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물음에 대해 전문가적 식견을 이 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출가, 입산,
부처의 삶을 가다

신록같은
비구니 스님들의
인생관, 수행관, 세계관!!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우리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동학사 일초 스님과 비구니스님들의 편지
우리나라 최초의 비구니 강원 동학사!
동학사 화엄학림장 일초 스님과
학인들의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마음은 초록색 힐링!
일초 지음 | 292쪽 | 14,500원

좌충우돌 수행 이야기
청암사 승가대학 비구니스님들의 일상생활상
KBS 2TV 다큐 3일의 신선한 감동!
비구니 강원 청암사의 365일!
청암사 승가대학 편집실 | 360쪽 | 15,000원

우리 모두는 인연입니다
수녀에서 비구니스님으로
독특한 이력의 일아 스님,
고등학교 교사에서 종교인으로!
태국, 미얀마, 미국에서 보낸 종교인의 삶!
체험으로 빚은 수행철학, 깨달음의 책
일아 지음 | 356쪽 | 12,000원

마음 거울
그림자와 떠나는 치유 여행
마음수련 프로그램 동사섭의 개척자이자
영성 교육의 대 마스터, 상담가들의 스승인
대화 스님의 상담 사례집!
바로 이 자리에서 치유의 행복을 선사하는 책
대화 지음 | 328쪽 | 15,800원

종이 칼
법념 스님의 산문집
팔순을 바라보는 노비구니스님이
컴퓨터 자판을 친다. 불현듯 연말이면
죽음이라는 단어에 민감해진다.
법념 지음 | 252쪽 | 13,800원

살다보면 살아진다
대중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
잘 견디고 있다고 응원하는 정운 스님
일상 생활 속에서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책
정운 지음 | 252쪽 | 13,800원